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서 경 현[†] 유 제 민 안 경 미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성향,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개인적/환경적 특성으로 아동의 사회불안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6학년 초등학생 546명(남: 279, 여: 267)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9세에서 13세($M=10.86$, $SD=1.19$)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 LaGreca의 사회불안 척도, 한국판 BAS/BIS 척도,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수 및 비모수로 구성된 26개의 변인으로 의사결정 나무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질적 요소인 행동억제체계가 아동의 사회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의 효과를 조절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물론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합과 더 나아가 이 두 변인과 개인적 혹은 환경적 특성의 조합으로도 아동의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로부터의 탈동일시, 부모-자녀 기질 궁합, 개인-환경 적합도 등과 함께 논의하였고, 아동의 사회불안에 대한 중재와 관련된 정보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사회불안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학과,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Tel: 02-3399-1676, E-mail: khsuh@syu.ac.kr

사회불안은 성인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동기나 청소년기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다각적으로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킨다(허재홍, 조용래, 2005;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Stein, Walker, & Forde, 1996). 이런 사회불안의 증상은 주로 청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아동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Degnan & Fox, 2007). 청년기에 발병하는 사회공포증이라도 그 증상은 아동기부터 발달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불안을 DSM-IV에서는 불안장애의 하위범주인 사회공포증으로 구분하면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개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타인에 의해 주시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개인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런 방식으로 행동할까봐(또는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장애”로 기술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유병율이 가장 높은 정신적 장애인 사회불안은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만성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Kessel et al, 1994).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불안을 주제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에 아동의 사회불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는 처벌과 위협 단서에 민감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인 멈춤 장치, 즉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Gray, 1990). 이 체계는 불안 관련 단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이전에 계획했던 행동을 그만 두게 하거나, 더

나아가 행동을 계획하지 않게 환경에서 다른 위협 단서들을 찾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로서, 뇌의 중격(septum)과 해마(hippocampus), 그리고 세로토닌 경로와 관련이 있다(김교현, 김원식, 2001). 이 체계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람에게 접근하는 행동을 철수시키고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불확실한 것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반응으로서의 행동억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요소이다(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예를 들어, 새로운 것에 부정적인 반응하는 유아는 아동기에도 억제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Sanson, Pedlow, Cann, Prior, & Oberklaid, 1996), 행동억제 성향을 보이는 유아는 성장하여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Rubin, Burgess, & Hastings, 2002). 이런 행동억제 성향은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도 개인을 불안장애와 같은 내재화된 장애에 취약하게 만드는데(Gar, Hudson, & Rapee, 2005),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불안과 상관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오경자, 양윤란, 2003; Coplan, Wilson, Frohlick, & Zelenski, 2006; Hayward, Killen, Kraemer, & Taylor, 1998; Mick & Telch, 1998).

아동기에 행동억제 성향이 강했던 사람은 청소년기나 성인기에서 사회공포증이나 그 외 불안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다(Gladstone & Parker, 2005; Gladstone, Parker, Mitchell, Wilhelm, & Malhi, 2005; Hayward et al., 1998; Schwartz, Snidman, & Kagan, 1999). 그렇다고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아동이 모두 사회불안을 보이거나 성장하여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Schwartz 등(1999)의 종단연구에서도 아동기 초기에 행동억제 성향을 보인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가능성은 더 컸지만 그들 모두가 청소년기에 사회불안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단지 39%만이 사회불안 증상을 나타냈다.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Gladstone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심한 행동억제 성향을 보인 사람 중에도 58%가 성인이 되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28%는 어떤 불안장애로도 진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Biederman et al., 2001)에서도 행동억제 성향이 적은 아동의 95%가 사회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아동의 83%도 사회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 Schwartz et al., 1999).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의 설명력이 강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행동억제가 사회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재홍(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불안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 기질이 성장하면서 환경적 원인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는데(Kagan & Snidman, 1991), 허재홍(2006)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간의 관계에 연령 외에도 여러 조절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행동억제체계는 지능 등과 같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Asendorpf, 1994). 하지만 한 연구(서경현, 유제민, 최신헌, 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행동억제는 다른 변인들과

함께 사회불안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그 관계를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Degnan과 Fox(2007)는 유아기나 아동기에 보이는 행동억제 성향의 영향이 지속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인지과정, 아동기의 환경, 그리고 부모양육행동을 개관하였다.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갖게 한다는 가설은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Parker, 1979). 부모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자녀의 대인관계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자녀가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Bruch & Heimberg, 1994; Bruch et al., 1989). 그런데 부모양육태도가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Rubin, et al., 2002; Rubin, Cheah, & Fox, 2001; Wood, McLeod, Sigman, Hwang, & Chu, 2003).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는 식의 부모양육은 유아기의 억제 성향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사회적 철회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et al., 2002; Rubin et al., 2001). 특히, 어머니가 수용적이면서 애정을 보이고 자녀의 반응에 민감하면 자녀가 억제 성향이 감소하고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할 가능성이 있다(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Wood et al., 2003). 한편, 아버지가 거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자녀가 사회불안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그러나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행동억제기질이나 외상경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행동억제가 매개 혹은 중재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로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각각 부모의 양육태도를 나누어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포함시킨 모형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Fox 등(2005)은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아동의 문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동을 감소시키면서 좋은 자아개념을 가지게 하여 행동억제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Degnan과 Fox(2007)는 자신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행동억제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한 생각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상황에 대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면 행동억제 성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Kagan & Snidman, 1991),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Degnan & Fox, 2007)이나 자기효능감(서경현 외, 2007)과 같은 긍정적 자아개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Bandura, 1977)은 대인관계나 사회성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Bandura, 1986; McDonald & Parke, 1984).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조명숙, 이영호, 2001; Edelman, 1985).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높게 잡기 때문에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Wallace & Alden, 1997). 간단히 말해 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부모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문혁준, 1999), 한 연구(서경현 등, 2007)에서는 부모양육과 사회불안 간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은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기대하게 되는데(Bandura, 1986), 자신의 사회적 대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면 그 상황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예상하게 되어 행동을 억제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기효능감을 아동의 사회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동억제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연령이 조절변인이 될 수 있고(오경자, 양윤란, 2003; 허재홍, 2006), 행동억제 기질이 환경적 원인에 의해 변할 수도 있다(Asendorpf, 1994; Kagan & Snidman, 1991).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불안에 대한 행동억제의 설명력이 강해 성별이 조절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부모양육방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로부터 탈동일시가 이루어져 부모의 영향이 적어질 수 있으며, 부모양육의 영향이 자녀의 형제관계(Arcus & McCartney, 1989)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사회불안을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도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포함된 모형을 탐색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불안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예언변인 간의 조합을 도출하는 변인 선택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형제수, 종교, 부모 직업, 경제수준, 학업 성적 등 일반 특성을 포함하여 행동억제체계,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사회불안을 예측하려고 하였다. 많은 독립변인을 예언변인으로 채택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는 비모수, 즉 명명척도와 서열척도도 포함되어 있고 결측치도 있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으로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2개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5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불완전한 자료는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수는 총 546명(남학생 279명, 여학생 267명)이었다. 대상자들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였으며, 연령은 만 9세에서 13세($M=10.86$, $SD=1.19$)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학년의 경우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년별로는 4학년 188명, 5학년 154명, 6학년 204이었다. 대

상자들은 평균 1.06명($SD=.59$)의 형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의 수는 평균 4.39명($SD=.71$)이었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담임 교사와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참여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평균 25분정도였다.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선행요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정하고, 이들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여 그 예측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인들은 인구 통계학적인 상태들과 심리적인 제반 변인들(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이며 종속변인은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합한 사회불안 총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 등이 혼합된 26개의 독립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연속형 종속변인(사회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별하는 독립변인의 조합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하고 자동으로 모델을 산출할 때는 즉, 상호작용이 전제될 때는 무한한 변인들 간의 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수적인 통계의 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질문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척도가 다양하고 반응특성이 다소 이질적이었으며 결측치도 많았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를 기초로 탐색적으로 모델을 추론하는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용 프로그램은

Answer Tree 2. 1v(1999)이었다.

사회불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변인과 변인 간의 조합을 도출하는 변인 선택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별 변수의 평균값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분산(improvement)의 감소를 이용하는 CART 방식을 사용하였다. CART 방식은 각 마디의 평균값을 예측값으로 사용하므로 마디가 진행될수록 평균값은 증가하고 분산은 감소한다. 정지규칙으로 최대한의 나무깊이(maximum tree depth)는 4 수준이었으며, 부모마디(parent node)와 자식마디(child node)의 사례 수는 하위 집단 모두 각각 30과 10으로 지정하였다. 결측치는 특정 마디에서 예측이 일치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체규칙(surrogate rule)을 설정하였다. 회귀나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정도는 위험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종모형의 예측력과 효율성은 이익지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은 전체 응답자를 열 개의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위험추정치를 기준으로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10-fold 교차타당화(10-fold cross validation)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BI: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한국 아동, 청소년에게 사용했던 척도를 활용하였다. 원래 본 척도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의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25 문항을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척도는 Parker(1979)와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요인구조가 돌봄(care)과 과보호(over protection) 2개로 나타났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응답하도록 변형한 이 척도는 문경주와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 애정, 과잉간섭, 자율성 존중 3개의 요인구조를 보였으며, 추후 연구(서경현 외, 2007)에서도 같은 요인구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애정(11문항), 과잉간섭(6문항), 자율성 존중(7문항) 각각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아버지 .80, .70, .78, 어머니 .78, .65, .78이었다.

대인불안

사회불안 중에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Greca(1998)의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18-9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은 부정적 평가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 두려움(4문항), 일반적 상황 두려움(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 .77, .75이었으며, 전체 척도는 .92였다.

수행불안

사회불안 중에 수행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혜신과 오경자(2002)의 한국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紧张해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紧张한다” 등 아동이 자주 접하게 되는 수행상황을 기술하는 9문항을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며 점수범위는 9점~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1이었다.

행동억제

대상자의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와 White(1994)의 척도를 김교현과 김원식(2001)이 표준화한 한국판 BAS/BIS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평정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척도로는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7문항), 보상민감성(reward responsiveness: 5문항), 추동(drive: 4문항), 재미추구(fun seeking: 4문항)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하위변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김교현과 김원식(2001)의 표준화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예언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보였고, 재검사 신뢰도는 평균 .79이상이었으며 내적일치도의 평균도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행동억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8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Jerusalem과 Schwarzer(1992)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척도를 한국인에게 변안을 맡겨 Jerusalem과 Schwarzer가 한국판으

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표현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은 1-‘전혀 아니다’, 2-‘거의 아니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에서 40까지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한국판 아동 및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KBCCL: 문경주, 오경자, 하은혜, 박중규, 1999)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성별과 연령을 포함하여 형제 수, 가족 수, 부모 학력(대졸 이상, 고졸, 중졸, 국졸, 무학), 본인의 종교와 부모의 종교(불교,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기타 종교, 무종교), 경제 수준(상류, 중류 중에 상, 중류 중에 중, 중류 중에 하, 하류), 부모의 직업, 학업 성적(아주 못함,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등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결 과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 행동억제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의 사회불안 예측 모형

모델은 마디의 증가분(improvement; 이하 i)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마디는 내 분산이 작으며 간 분산이 가장 커지는 특성으로 자동으로 구분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분류나무가 형성된다. 먼저 형성된 상위 마디의 변인일수록 중요하며 자식마디의 특성들이 누적되어 갈수록 그 변인들이 전체 모델에 기여하는 정도(증가분)는 점점 적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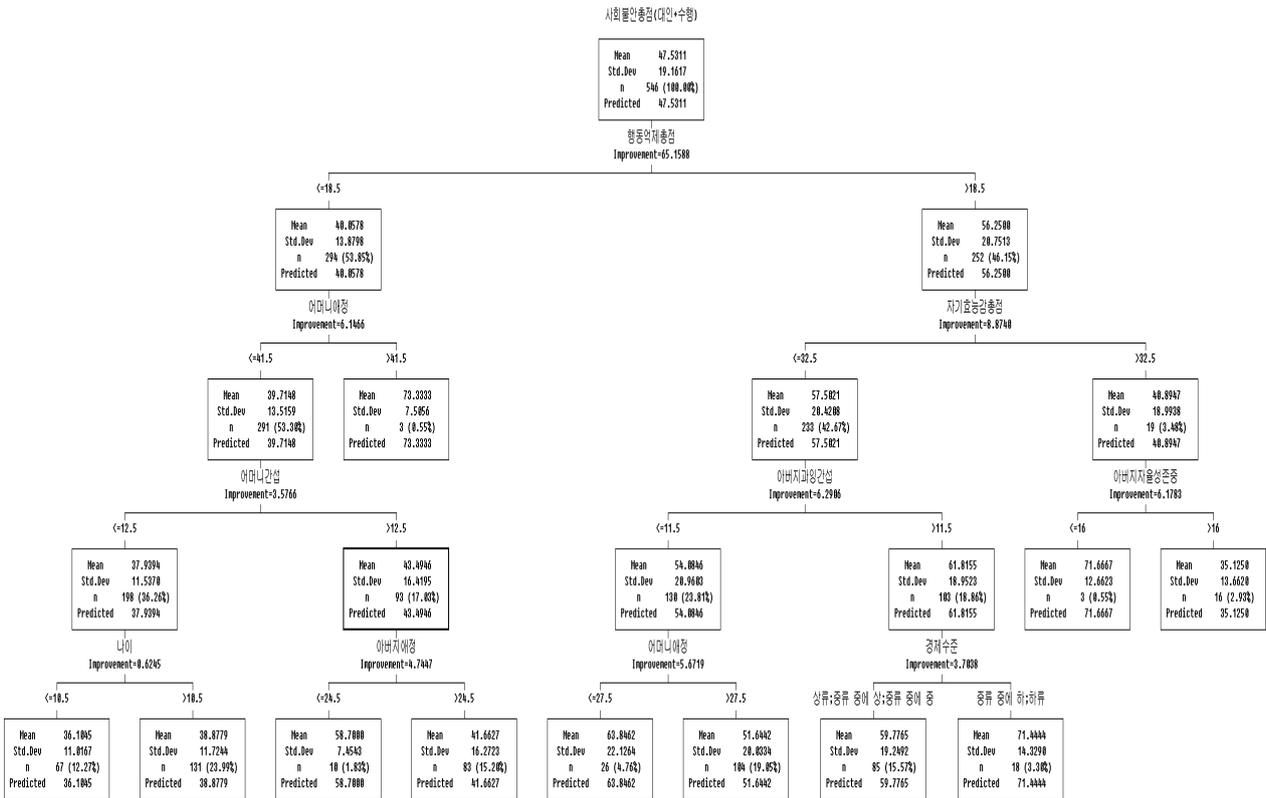


그림 1. 사회불안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행동억제체계의 정도였다. 행동억제 수준이 높을수록(18.5점 이상) 사회불안이 심각하였다(평균 = 56.25). 이런 특성을 가진 아동이 자기효능감도 높을 경우에는(32.5 이상) 사회불안이 감소한다(56.25에서 40.89로).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것은 일종의 기질이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신념은 이런 기질의 특성을 조절하는(moderated)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할수록(16.0 이상) 사회불안은 더욱 감소한다(35.12). 행동억제 수준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동(32.5 이하)은 사회불안 수준이 높다(57.5). 이런 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과잉간섭(11.5 이상)이 심할 경우 사회불안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61.85). 아버지의 태도와 관점은 자녀의 사회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Masten, Best, & Garmezy, 1990). 본 모델에서는 자율성의 존중과 과잉간섭이라는 아버지의 양극적 태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나 사회불안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확인되었다.

아버지가 과잉간섭하면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중하류) 사회불안은 더욱 높아진다(71.44). 아버지에 의한 위축과 가난 등에 의한 자신감 상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행에 대한 평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간섭이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버지도 간섭하는 경향이 적고(11.5 이하) 어머니의 애정도 적을 경우(27.5 이하) 사회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63.84) 무시당하거나 방임된 가정의 아동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아버지가 간섭하는 경향이 적더라도 어머니의 애정이 높을 경우(27.5 이상) 사

회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51.64)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동기의 경우 아버지로 인한 위협요인에 대해 어머니의 정서적인 개입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oeber, 1990).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아이의 기질 궁합이나 환경부합성 가설(environment fit hypothesis)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과 간섭은 각기 다른 효과가 있다(Fursteinberg, 1990). 기질적인 면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아동(18.5 이하)은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Gray, 1990). 심리적인 멈춤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애정 수준도 낮을 경우(41.5 이하) 사회불안 수준은 크게 낮아진다(39.71).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협단서를 찾고 경고해주는 부모의 개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본 모델에서는 어머니의 간섭이 적을 경우(12.5 이하)에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37.93).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과 간섭이 제지 경향성이 미약한 아동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애정과 간섭이 적더라도 아동이 나이가 증가하면(10.5세 이상) 사회불안이 다소 증가한다(38.87). 이것은 대인관계의 폭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 발달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인 지각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가 과잉간섭(12.5 이상)을 하면서 정작 애정은 없는데(41.5 이하) 아버지마저도 애정이 없을 경우(24.5 이하) 자녀의 사회불안은 갑자

기 크게 증가한다(58.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없는 간섭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행동 특징을 야기한다.

초등학생 사회불안 모형에 관한 최종결과는 표 1에서와 같은 이익도표를 통해 해석되었다. 마디번호가 9번인 것은 행동억제를 적게 하고 (18.5이하) 어머니의 애정이 높은(41.5이상) 마디의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9번 마디의 자료 수는 3이며 전체의 0.55%를 차지한다. Index(%)를 보면, 9번 마디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불안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않고 분류하는 뿌리마디에서 보다 154% 이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누적된 이익지수는 각 마디들이 추가되면서 증감되는 예측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 1의 11개 마디로 의사결정 나무를 구성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즉 간단하면서도 설명량이 큰 모델이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누적된 이익지수의 Index(%)가 100%가 되는 마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사회불안 모형은 간결하며 효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델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치기(pruning)를 해야 한다면, 개별 이익지수가 100%이하인 20, 25, 26, 32번 마디의 특성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마디에 의해 형성된 모형의 과잉적합성(over fit)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집단을 단순임의추출법으로 분할하는 교차타당성 평가(10-fold cross validation)를 실시하였다. 만약 산출된 값이 모형의 위험추정

표 1. 초등학생의 사회불안을 예측해 주는 각 마디의 이익도표(gain chart)

마디별 이익지수					마디별 누적된 이익지수			
Node	Node: n	Node: %	Gain	Index(%)	Node: n	Node: %	Gain	Index(%)
9	3	0.55	73.33	154.28	3	0.55	73.33	154.28
19	3	0.55	71.67	150.77	6	1.10	72.50	152.53
17	18	3.32	71.44	150.31	24	4.40	71.71	150.86
13	26	4.76	63.85	134.32	50	9.16	67.62	142.26
16	85	15.57	59.78	125.76	135	24.73	62.68	131.87
31	10	1.83	58.72	123.41	145	26.56	62.41	131.29
14	104	19.05	51.64	108.65	249	45.6	57.91	121.83
32	83	15.21	41.66	87.65	332	60.81	53.85	113.29
26	131	23.99	38.88	81.79	463	84.8	49.61	104.38
25	67	12.27	36.13	75.95	530	97.07	47.91	100.78
20	16	2.93	35.13	73.89	546	100.00	47.53	100.00

주. **Node** - 의사결정나무구조에서 보여주는 마디번호(그림에서의 마디번호 순서는 위에서 왼쪽부터이다), **Node: n** - 해당마디 번호에서의 자료 수, **Node: %** - 백분율, **Gain %** - (Resp: n) / (Node : n)의 비율, **Index(%)** - 해당마디에서의 Gain(%) / 전체자료에서의 평균분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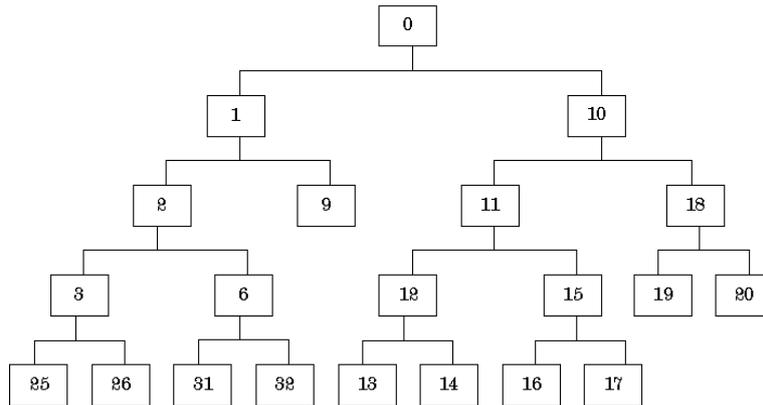


그림 2. 사회불안의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마디번호

치보다 크면 안정성이 없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초등학생의 사회불안 모형은 교차타당도의 위험추정치가 58.123(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18.34)으로서 원래의 값인 55.22(위험추정치의 표준오차=13.1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반 특성을 포함하여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으로 사회불안을 효율적으로 예측하는 변인과 그 변인들 간의 조합을 보여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사회불안과 관련된 변인을 검증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과 그것들과 상반된 것도 있었지만 변인 간의 의미 있는 조합을 보여주었다.

안정적인 기질적 요소로 알려진 행동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egnan과 Fox(2007)이

제시한 모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유아기의 행동억제가 성장기의 소극적 대인관계와 관계가 있고(Rubin et al, 2002), 행동억제 성향이 있는 사람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선행연구(Gladstone & Parker, 2005; Gladstone et al., 2005; Hayward et al., 1998; Schwartz et al., 1999)를 지지하는 것이다. Degnan과 Fox(2007)은 행동억제를 사회불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심리적 변인으로 가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보다 사회불안을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처벌이나 위험 단서에 민감하여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심리적 행동억제체계는 불안 관련 단서들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행동을 그만 두게 하는데 이것이 대인관계에서도 발현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은 행동억제 성향이 있는 아동이 모두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Schwartz et al., 1999)을 전제하고 있다. 불안 관련 단서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절변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서경현 등,

2007; 조명숙, 이영호, 2001)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성향이 있는 아동도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면 사회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인지적 변인(Bandura, 1977)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억제 성향을 조절하고 있었다. 자신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억제를 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기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 때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억제를 인지적 신념이 조절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에 인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지지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구자들이 가정하였던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검증된 적이 빈번했다(Park et al., 1997; Rubin, et al., 2002; Rubin et al., 2001; Wood et al.,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태도와 삶에 대한 관점은 자녀의 사회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개념이며(Irwin & Millstein, 1986), 사회화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전제이다(Trusty & Dooley-Dickey, 1993). 몇몇 선행연구(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에서도 아버지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행동억제를 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불안할 가

능성이 더 높다. 그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과잉간섭을 하면 사회불안 수준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사회불안이 감소하였다. 아버지의 간섭을 하고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과잉간섭에 의해 위축된 아동이 가정의 경제 사정마저 좋지 않으면 사회불안을 더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경우도 가정 경제가 사회 상황에서 위축되게 만든다는 증거이다. 이런 결과는 가난이 아버지를 좌절시키고 또 이것이 자녀양육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간섭 수준이 낮을 경우도 자녀의 사회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고 어머니의 애정 표현이 적을 경우 사회불안 수준이 매우 높는데, 이런 아동은 무관심으로 방임된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은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애정 어린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이 사회불안을 덜 경험하였다. 이런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기에서의 한쪽 부모로부터의 위협 요인에 대한 다른 한쪽 부모의 특성이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검증된 적이 있다(Loeber, 1990; Steinhausen & Winkler, 2001).

어머니의 애정 어린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Park et al., 1997; Wood et al., 2003)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부모-자녀 기질 궁합(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model) 혹은 개인-환경 적합도(person-environment fit model)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tafford & Bayer, 1993). 동일한 부모의 양육방식이라도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ttew, Stanger, McKee, Doyle, & Hudziak, 2006). 기질적 차원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아동은 처벌에 민감하지 않은 반면 보상에 민감하여 심리적으로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Gray, 1990). 이런 아동에게 어머니의 애정 표현이 적으면 오히려 사회불안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가 위험 단서를 파악하여 참견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간섭을 잘 하지 않을 경우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앞선 해석을 더 확고하게 하고 있다. 어머니의 애정표현과 간섭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지 경향성이 부족한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더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다.

행동억제 성향이 강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표현과 간섭이 적더라도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 사회불안 수준도 다소 증가하였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사회적 지각이 확장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 것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 부모에 대한 탈동일시가 촉진된다(Berk, 2002). 즉, 자율성이 발달하고 친구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Kail, 2003) 부모의 통제로 인한 영향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다소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태도의 독특한 조합이 자녀인 아동의 사회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얻었다. 어머니가 애정도 없이 자녀에게 과잉간섭을 하는데 아버지마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크게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없는 간섭은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위축시킬 수 있다. 아동은 애정 없는 부모의 간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여겨질 수 있기에 사회 상황에서 수행을 두렵게 만들었을 수 있다. 각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합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Arnott, 1998),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서경현 등 2007; Katz, 1988),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양육태도의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과잉통제가 문화에 따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Rohner & Pattengill, 1985). 아동의 행동을 과잉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서양의 아동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동양의 아동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Chao, 1994).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이런 결과를 얻은 연구에서는 구성원 사이에 위계질서와 조

화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여겨지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자녀 기질 궁합 혹은 개인-환경 적합도(person-environment fit)에 따라 동일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다르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많은 아동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이나 특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이 행동억제 성향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인지적 차원인 자기효능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의 사회불안에 개입하고자 하는 발달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및 건강심리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이 있는 아동의 행동억제 성향에는 자기주장 훈련이나 행동수정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경험을 영향을 미쳐 추후 사회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유아와의 어머니의 긍정적인 소통은 부정적인 정동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Belsky, Fish, & Isabella, 1991). 본 연구를 통하여 더 나아가 부모양육태도의 효과가 아동의 특성이나 성장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녀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특정한 조합의 영향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조합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였으면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를 경우 상호보완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방식에 있어서 부부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양육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때 부족한 방식을 메운다고 한다면 한 요인으로 합산되는지, 혹은 각각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나머지 부모의 양육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관계나 방향성을 추후 연구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 존중과 과잉간섭이 각각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양극적이고 상반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도 요인구조를 검토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질문지의 총점을 합산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 추후연구도 있어야 하겠다. 방법론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와 변인 수가 많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에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많다고 가정하였다. 데이터의 패턴이나 상관관계가 복잡하다고 예측될 경우 표집의 크기가 클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변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표본의 크기를 조정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부모들은 교육열을 대단하여 자녀의 미래를 위해 초등학교 재학 당시부터 학업과 관련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자

녀의 성공, 더 나아가 행복을 위해 사회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아동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한 본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19-37.
-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문경주, 오경자, 하은혜, 박중규 (1999). 주의산만, 과잉활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군집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99-207.
- 문혁준 (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 141-151.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29-443.
- 서경현, 유제민, 최신혜 (2007).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가 고등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중재효과와 행동억제체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 255-272.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557-576.
- 조명숙, 이영호 (2001).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 확률 판단 및 부담 정도 판단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93-103.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cus, D., & McCartney, K. (1989). When baby makes four: Family influences in the st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J. S. Reznick (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 (pp.197-21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3), 301-320.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m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sendorpf, J. B. (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12-919.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erk, L. E. (2002). *Infants and children: Parental through middle childhood*. Boston, MA: Allyn & Bacon.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erot, C., Friedman, D., Snidman, N.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673-679.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s: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oplan, R. J., Wilson, J., Frohlick, S. L., & Zelenski, J. (2006). A person-oriented analysis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behavioral activation in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917-927.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Edelman, R. J. (1985). Dealing with socially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288.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235-262.
- Fursteinberg, F. (1990). Coming of age in a changing family system. In S. Feldman and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147-17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ar, N. S., Hudson, J. L., & Rapee, R. M.

- (2005). Family f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anxiety disorders. In J. L. Hudson & R. M. Rapee (Eds.), *Psychopathology and the family* (pp.125-145). New York: Elsevier.
- Gladstone, G. L., Parker, G. B., Mitchell, P. B., Wilhelm, K. A., & Malhi, G. S. (2005).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and lifetime anxiety disorders in a clinical sample. *Depression and Anxiety*, 22, 103-113.
- Gladstone, G., & Parker, G. (2005). Measuring a behaviorally inhibited temperament sty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new self-report measures. *Psychiatry Research*, 135, 133-143.
- Gray, J. A.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 269-288.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 1308-1316.
- Irwin, C. E., & Millstein, S. G. (1986). Biopsychosocial correlates of risk-taking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7, 82-96.
- Jerusalem M., &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In R. Schwarzer (Ed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pp.195-213). Washington, DC: Hemisphere.
- Kagan, J., & Snidman, N.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 856-862.
- Kail, R. V. (2003). *Children and their development*.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Katz, L. G. (1988). Child-rearing disagreements. *Parents*, 63, 170.
- Kessler, R. C., McGongle, K., Zhao, S., Nlson, C., Hughues, M., Eschle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 Loeber, R. (1990). Antisocial behavior: More enduring than changeab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393-397.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 425-424.
- Mcdonald, K. A.,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5, 1267-1277.
- Mick, M., & Telch, M.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1-20.
- Park, S.,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Retzew, D. C., Stanger, C., McKee, L., Doyle, A., & Hudziak, J. J. (2006).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parent tempera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omparative Psychiatry*, 47, 412-420
- Rohner, R. P., & Pa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 (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 483-495.
- Rubin, K. H., Cheah, C. S. L., & Fox, N. A.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 97-115.
- Sanson, A., Pedlow, R., Cann, W., Prior, M., & Oberklaid, F. (1996). Shyness rating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705-724.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 1008-1015.
- Stafford, L., & Bayer, C. (1993).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Stein, M. B., Walker, J. R., & Forde, D. R. (1996). Public speaking fears I a community sample: Prevalence impact on functioning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3, 169-174.
- Steinhausen, H., & Winkler, C. (2001). Risk, compensatory,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59-280.
- Trusty, J., & Dooley-Dickey, K. (1993). Alienation from school: An exploratory analysi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26, 232-242.
- Wood, J. J., McLeod, B. D., Sigman, M., Hwang, W. C., & Chu, B. C. (2003). Parenting and childhood anxiety: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4, 134-151.
- 1 차원고접수 : 2008. 10. 12.
수정원고접수 : 2008. 11. 30.
최종게재결정 : 2008. 12. 7.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 on of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Kyung Hyun Suh

Sahmyook University

Jhe Min You

Kangnam University

Kyung Mi An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model of predicting social anxiety in childhood with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self-efficacy, and pers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ticipants were 546 students (186 males and 294 females) from 4th,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whose ages ranged from 9 to 13 ($M=10.86$, $SD=1.19$).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d the following: the Korean version of Parker's Parental Bonding Instrument, LaGreca's Social Anxiety Scale, the Korean version of Carver & White's BAS/BIS Scale, and Jerusalem & Schwarzer's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sults revealed child'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as a temperament was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elf-efficacy plays the role of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behavioral inhibition to social anxiety in childhood. It was found that father's parental attitude as well as mother's parental attitude was significant predictor of child's social anxiety, suggest roles of combination of both parents' attitudes and its combination with child's characteristics for social anxiety. It was discussed with de-identification from parents, temperament and goodness of fit, and person-environment fit, and suggested the information for the intervention of child's social anxiety.

Key words : child,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self-efficacy, social anxiety